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박차

교류협력위원회 2차 회의
유라시아 철도 등 기금 활용
구체적인 사업 방안 논의



익산시는 지난 15일 정현을 익산시장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2차회의를 가졌다. <익산시 제공>

익산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익산시에 따르면 시는 최근 정현을 위원장과 정도상 부위원장 등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 13명이 참석한 가운데 시청 상황실에서 '남북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지난 4월 남북교류협력위원회를 구성하고 첫 회의 이후 두 번째다. 회의에서는 1회 추경에서 확보한 기금 5억원을 활용한 구체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또 6·30 남북·미 정상회담 후의 남북동향에 따른 시의 남북교류협력사업의 향후 추진방향에 대해 논의를 펼쳤다. 시는 남북관계의 변화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익산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또 올해 1월 유라시아 철도 사업추진을 위한 철도정책계를 신설했다. 이를 바탕으로 전북권 광역전철망 구축 사업 및 KTX 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등 남북교류협력에 선제

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3월에는 남북교류전문가 9명을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한데 이어 6월에는 전북지역 자치단체 중 처음으로 5억원의 기금을 조성했다. 위원장인 정현을 익산시장은 "익산시는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최적의 요건을 갖춘

도시로 앞으로 도시의 장점을 살린 다양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발굴·추진해 나갈 것"이라며 "남북교류협력사업은 대외적 요인이 많이 작용하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유정영 기자 yjy@



'곡성한바퀴, 개미진 여름여행' 시작

27일부터 매주 토요일 진행...은어잡기 체험도

곡성군은 계절상품인 '곡성 한바퀴, 개미진 여름여행'을 오는 27일부터 8월 31일까지 매주 토요일 5차례 진행한다. 곡성 한바퀴는 2017년부터 곡성군과 주민여행사 '그리곡성'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동으로 개발한 계절 여행상품이다. 사계절에 맞춰 '꽃바람 봄여행', '개미진 여름여행', '아무진 가을여행', '코시린 겨울여행' 등을 계절마다 4~6차례 운영하며 현지 가이드가 동행한다. 개미진 여름여행은 곡성 한바퀴 상품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여행 상품으로 곡성군 목사동면 용암마을에서 현지 주민들과 함께 진행된다. 곡성 대표 별미인 은어를 직접 잡아 구워 먹는 은어잡기 체험(사진)과 섬진강 맑은 물에서 직접 채취한 다슬기로 끓인 수제비를 맛보는 등 곡성에서만 즐길 수 있는 특별한 체험행사로 구성됐다. 여행비용은 곡성군에서 일부 지원하기 때문에 비교적 저렴한 편으로 성인 3만 3000원, 소인 2만9000원 등이다. 선착순으로 회당 30명을 모집한다. /곡성=김계중 기자 kjkim@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 20일 개장

정읍시 도심 물놀이 공간인 '정읍천 청소년 물놀이장'이 20일부터 다음 달 18일까지 운영된다. 물놀이장은 정읍 시내를 가로지르는 정

읍천 3천860㎡ 공간에 만들어졌으며 풀장, 물썰매장, 인공폭포, 안마용 폭포수 등을 갖췄다. <사진> 그늘막 시설과 탈의실, 화장실 등의 편

의시설도 마련됐다. 운영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정읍시는 물놀이장 주변에 조명시설을 설치해 밤에도 시민들이 데어를 식힐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정읍=박기섭 기자-전북취재본부장

남원시, 식량산업 5개년 계획 농림축산부로부터 최종 승인

남원시는 올해부터 2023년까지 남원시 식량산업의 방향을 제시할 '식량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앞으로 5년간 RPC 유통시설현대화, DSC 신축, 교육컨설팅·시설장비지원·사업다각화 등의 식량작물 공동경영체 육성 등으로 국비공모사업 신청자격을 획득해 다양한 식량산업기반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 RPC 매입자금 우대금리 적용 및 추가자금 배정, 식량산업분야 신규사업 추진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확보해 식량산업 발전전략을 획기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식량산업 5개년 계획은 중산정책 위주에서 과감히 벗어나 시대변화에 따른 식량산업의 발전방향과 고품질 쌀의 안정적 생산·유통기반 조성을 위한 능가 조직화 및 계열화, 쌀 생산 조정제에 따른 논 타작물 전환 등 식량산업 전반을 새롭게 기획한 것이다"고 말했다. /남원=백선 기자 bs8787@

고창군, 고택·건축물 '명품문화재' 관광자원 육성

고창군은 지역의 고택과 건축물을 관광자원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고창군에 따르면 군은 유기상 군수주재 주간 현안회의를 고창읍 화산리에 있는 취석정에서 진행했다. 이는 지난해 고창읍성 동헌에서의 현안회의 이후 지역 역사문화 유적지에서 2번째로 열렸다.

'취석정(醉石亭, 전북도 유형문화재 153호)'은 1546년(조선 명종 1)에 조광조의 제자였던 노계(蘆溪) 김경희가 지었다. 특히 취석정 인근에 주민 생태 휴식공간인 자연마당이 개장하기도 했다. /고창=김형호 기자 khj@

순창경찰서~옥천교 구간 4차선으로 확장

순창군은 순창경찰서에서 옥천교까지 기존 2차선인 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고 옥천교에 인도교를 설치하는 도로개설공사를 추진 중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공사는 총사업비 17억원을 들여 330m 구간에 기존 2차선에서 4차선으로 확장하고 옥천교 양방향 80m 구간에 폭 1.5m의 인도교를 설치하는 것이다.

특히 이번 도로 확장으로 광주나 담양에서 순창을 찾는 방문객과 신규 입주할 앞둔 온리뷰 아파트 2차 입주주민들의 주민 불편 해소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아울러 옥천교에 인도교를 설치해 순창천변을 따라 산책을 즐기는 보행자 및 교통약자 등의 안전 확보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군은 옥천교의 경우 도로 확장 공사 제외로 왕복 4차선에서 2차선으로 줄어들어 발생할 수 있는 교통체증은 교성리와 순화리를 잇는 교량 78m(폭 13m·2차선)를 추가 가설해 분산 처리할 계획이다. /순창=장양민 기자 jym@

세월글

"직원 신뢰 바탕 수용질서 확립 최선"

김춘오 목포교도소장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과 법에 근거한 업무처리로 청렴하고 사고 없는 목포교도소를 만드는데 힘을 쏟겠습니다."

최근 제51대 목포교도소 소장에 취임한 김춘오(55) 서기관은 "직원들 모두가 한마음으로 소통하고 합심해 서로 잡아주고 믿어주는 신뢰를 기반으로 한 조직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신임 김 소장은 또 "국가안보와 국민 안전을 책임지는 제복공무원으로서 복무기강 확립과 공무원 품위유지, 수용

질서 확립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춘오 소장은 조선대 법학과를 졸업, 1990년 33기 교정간부로 임용돼 2005년 교정관, 2014년 서기관으로 승진했다. 광주지방교정청 총무과장, 해남교도소장, 순천교도소장, 흥성교도소장 등을 역임했다. /목포=고규석 기자 yousou@





Aroma Life
아로마라이프
www.aroma-life.co.kr

FACE 메이크업만 하는 시대는 끝!
이제는 BODY 메이크 UP!

☆☆
흐트러져 있는 살들을 제자리로 정돈 시켜 완벽한 몸매로!

가능성 보정 속옷 12년 장수기업
기능성 속옷의 명가

한국, 미국, 일본, 중국 특허 부위별로 특별하게! 생리적인 불편을 해소	편안한 착용감 탄성GOOD! 흡발습GOOD! 일본 도레이社 LYCRA 별단면유기합성 사용	실크프로테인아미노산기공 원적외선기공
--	--	------------------------

대리점·총판문의 **1588-2219**

본사 광주광역시 북구 경일로 235 V&G빌딩 서울사옥 서울특별시 강남구 논현로 28길 5 축복빌딩(도곡동 518-9)